

‘보배섬’ 풍광 즐기며... 느릿느릿 늦가을 ‘힐링 라이딩’



2022 신안 증도 자전거 대회

2022. 11. 28. (월) | 증도면



28일 전남 신안 증도 일원에서 2022 자전거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자전거인들이 출발신호에 맞춰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낙조 전망대·광암나루터 등 명소 둘러보며 자전거 투어 비경쟁에 여유롭게 자연과 호흡

국민건강·생활체육 확대 목표 기념품·경품추첨 등 기쁨 두배 12월4일 퍼플섬서 두번째 대회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보배섬’ 신안 증도의 풍광을 만끽했다.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Happy Riding)가 28일 신안군 증도면 일대에서 열렸다. 1004스포츠클럽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사)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자전거 동호인, 광주·전남 동호인 3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국민건강과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증도의 대표적인 명소를 둘러봤다. 대회 장소인 증도는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우 시티’로 지정됐던 섬이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도시인들은 이곳에서 ‘느림의 미학’ (美學)을 느낄 수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갯벌도립공원’



대회에 참가한 자전거인들이 출발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가 습지보호지역’, ‘탐사르 습지’, ‘금연의 섬’ 등 타이틀이 다양하다. 증도에는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140만평) 규모인 태평염전(근대문화유산 360호)이 자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회 개막식 장소인 신안 갯벌박물관에서 출발해 광암나루터~짱뚱어다리~증도낙조 전망대~증도왕바위 전망대~태평염전~광암나루터 등 35km 코스를 달렸다. 이정열(80·서울 동작구·은마자전거연맹)씨는 “신안은 워낙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 차례 라이딩을 즐겼다”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코스를 달리는 즐거움은 비할데가 없다. 특별한 자전거대회가 개최돼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비경쟁 자전거 투어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증도의 자연을 호흡했다. 참가자들은 코스 가파른 구간이 없어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피로감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동호인 등이 즐기는 ‘열린 대회’로 치러졌다. 주최측은 대회 참가 기념품을 비롯해 경품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자전거 용품 등을 제공했다. 한편,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두번째 행사는 오는 12월 4일 신안군 안좌면(퍼플섬) 일대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천혜의 비경과 생활체육 접목...신안 널리 알릴 것”

박우량 신안군수

“전국 생활체육인, 스포츠 동호인들이 코로나 19 환자가 가장 적은 전국 2개 자치단체 가운데 한 곳인 신안을 찾아와 즐겼으면 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28일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개막식이 열린 신안 증도 갯벌박물관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자전거는 남녀노소,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다”면서 “특히 풍광이 아름다운 신안에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면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2022 신안 자전거 대회’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올해는 평지 코스를 선정했지만 향후 대회에는 신안의 비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산과, 갯벌 등을 달릴 수 있는 MTV코스로 세분화해 대회를 치를 복안도 있다”면서 “흑산도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활성화에도 보탬



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관광을 대표하는 흑산도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기 때문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 군수는 그동안 생활체육 불모지인 신안에 대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했다.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체육관 8개를 신축했고 면 단위, 마을마다 생활체육 시설을 집중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스포츠 장비를 지원했다. “전 군민이 1인 1종목 스포츠, 생활체육을 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 군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체육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 신안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주민들이 도시 못지않은 삶을 누리는데 생활체육이 중요한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박 군수는 “올해 신안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퍼플섬에 40만명, 비금·도초를 찾는 이들이 각각 13만명에 달한다”면서 “더 많은 이들이 신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천혜의 비경과 생활체육, 스포츠를 접목해 신안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심리적·육체적 ‘치유’가 자전거 최고의 매력”

은마동호회 김은희·유선희 씨

“신안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 위해 360km 달려왔습니다.” 김은희(여·70·서울 은마자전거동호회)씨와 유선희(여·55·서울 동작구자전거연합회)씨는 28일 신안군 증도 일원에서 열린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Happy Riding)에 참가해 자전거의 매력으로 심리적 육체적 ‘치유’를 꼽았다. 서울에서 대회 전날 신안을 찾은 두 사람은 각각 동네 자전거 동호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마자전거동호회 창립멤버로 라이딩 26년 차인 김씨는 “자병 때문에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며 “근거리 교통정책으로 자전거를 권유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환경도 고려해 지금까지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은마자전거 동호회 사무장으로 이날 동호회 회원 27명과 함께 신안을 찾았다. 자전거를 즐기는 남편을 따라 시작한 라이딩은 유씨에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 유씨는 “자전거를 탄지 10년이 됐지만 그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드는 중”이라며 “자전거 타길 잘했



서울에서 신안을 찾은 유선희(왼쪽), 김은희씨가 안전한 라이딩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는 생각이 늘는다”며 웃었다. 김씨와 유씨가 신안을 찾은 건 세번째라고 한다. 김씨는 최근 천사대교 개통식을 찾아 자전거를 타고 천사대교를 건너 바닷길. 유씨는 과거 자전거 동호회 행사가 열리는 날이 아님에도 남편과 함께 개인적으로 신안을 방문해 자전거를 탄 경험도 있다. 두 사람은 신안군을 자주 찾는 이유로 “한적하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안=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